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0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7월 26일 (음력 7월 2일) 수요일

정치력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시험대

잦은 舌禍·국회의원과 갈등…도의회와 힘겨루기
"이러다 시·도정 망칠라" 시민들 '상생 정치' 주문

재선에 성공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정치력이 민선 4기 초반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박 시장은 열린우리당 지역 국회의원과 상호 고소·고발에서 촉발된 갈등 때문에, 박 지사는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와의 긴장 관계라는 복병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 의장 선출 개입설로 시작된 박 시장의 정치력에 대한 도전은 급기야 민주당 중앙당과의 불협화음으로 번졌다.

이 갈등은 당내 역학관계로부터 기인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중앙당이 선거 승리의 중심에 있는 박 시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불필요한 고소·고발전도 이유야 어떻든 갈등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정치력이 상처를 받았다. 더구나 재선 이후 박 시장 특유의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여야 의원들과는 서로 협조해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도의회에 제출한 민선 4기 조직개편안이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후속 인사와 각종 현안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도가 수개월 동안 준비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의회와 협력 관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되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차상의 문제가 양측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영윤 기획행정위원장은 25일 "사전 설명도 없이 조직개편안을 불과 하루 전 상임위에 제출해놓고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사실상 '거수기'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인 의회에 대한 설득 부족이 가장 먼저 꼽힌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집행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를 다짐해왔음에도 전남도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채 서둘러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과정에서 대의회 관계를 책임져야할 정무라인의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박 지사가 직접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수도 특별회계 설치
"청와대가 나서라"

정부 부처와 직접 조율을

최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축소 조성 움직임〈본보 25일자 1면〉을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특별법 내의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와의 직접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내에 특별회계를 설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야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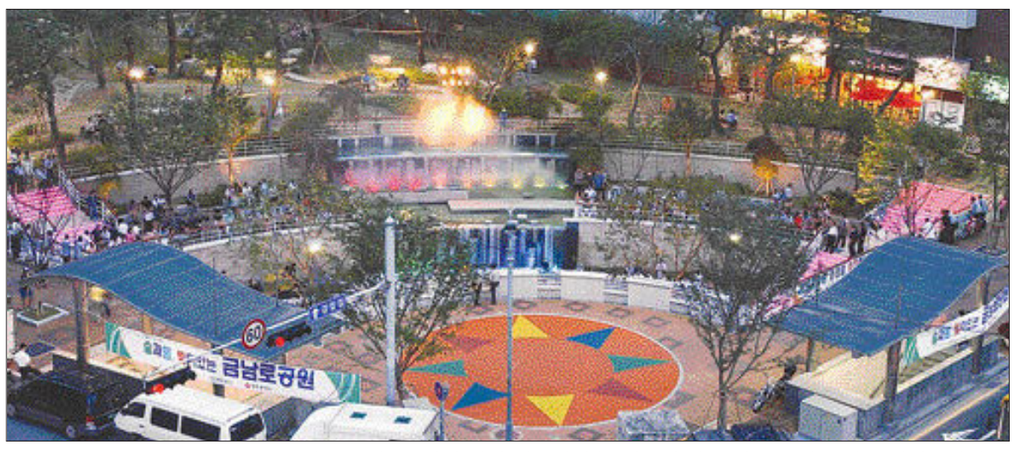
이와 관련 조만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갖고 특별회계 설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광주시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문광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회계 추후 논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가 현실적으로 세입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행정편의적인 입장"이라며 "특별법 내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추후 수입이 있을 경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도심속 생태 공원 소나무 숲과 물·빛이 한데 어우러진 '금남공원'이 25일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시 금남로3가 옛 한국은행 부지 1천56평에 조성된 금남공원은 인공폭포를 만들고, 소나무 사이에 실개천이 흐르는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명성황후 추정 사진 발견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다.

영국인 사진 수집가 테리 베닛(56)은 3년 전 런던의 고서적상으로부터 산 독일 사진작가의 사진첩 안에서 있던 명성황후 추정 사진, 고종과 순종이 함께 찍은 사진, 대원군 사진 2장 등 4장의 사진을 25일 공개했다.

특히 명성황후 추정 사진의 설명문에 '시해된 왕비(Die Ermodete Konigin)'라고 적혀 있었고 대원군과의 사진과 배경이 정확히 일치,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지금까지 발견된 사진 중 진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명성황후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모두 궁녀 또는 가짜로 결론 내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美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되나"

盧대통령, 李통일 옹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북한 미사일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 발언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타를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 장관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과 이 장관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파문을 던질 것으로 예고된다.

또 북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정책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이견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장관들은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고 되받아서 질문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고 국무위원들이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소신을 얘기해야 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미국만 항상 100% 옳다고 보는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 物價情報
http://www.kpi.or.kr
(사)한국물가정보

신풍제약주식회사
활기찬 하루, 건강한 인생!
닥터큐텐
열심히 뛰는 사람들 곁엔 닥터큐텐이 있습니다.

β-Carotene
Vitamin C
Coenzyme Q10
Zinc
Vitamin E
코엔자임Q10이란?
닥터큐텐은 이런분께 좋습니다.
코엔자임Q10 & 항산화제
닥터큐텐 연질캡슐
소비자상담전화 080-200-0101